

Do not weep for me, but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산호세 한인 성당 성령 기도회

3

주 제:	“주님의 현존”	“부활 제 3주일”	2008년 4월 6일
복음 묵상:	[루카 24,13-35]	[사도 2,14. 22 나-33]	[1 베드 1,17-21]

이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연해 졌습니다. 우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고민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설명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빌려 새로운 이해의 눈을 주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초대 한 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의 굴곡 많은 인생사를 성경의 빛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용서 그리고 배신과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이를 어여쁘게 보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찬례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성찬례는 내면의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 화해와 용서의 눈, 찬미와 감사의 눈, 감격의 눈으로 만이 그 의미를 진정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모든 신앙인은 미사성체 안의 함께 나누게 되는 빵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원)김경민 신부님 강론에서]

주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소성당	2008년 4월 2일(수요일)
진행: 박 어거스틴	음악: 박 어거스틴	참가 가족: 12명
복음 묵상: 루카 24,13~35		

나눔

- * 부친상을 그렇게 빨리 당할줄 몰랐는데...돌아가시기전날 대세를 받으심,목주기도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심을 느낌 장례를 마치고 2주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데 꿈속에 아버지께서 저의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그동안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나눔,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 이곳도 좋지만 그곳도 좋아 “라고 말씀 하심 잠에서 깨어보니 너무 생생 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되었음.돌아가실때 성모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다는것을 느꼈음.편안히 돌아가셔서 이제 마음이 편안함.
- * 3월초부터 체기가 있었는데 ...속이 너무 아파서 두려움과 혼자서 온갖생각과 계획을 세움. 약을 처방받아 수요일부터 약을 먹었는데 토요일부터 속이 편안해짐 오늘 이 자리에 나올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
- * 원하면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쪽으로 이끌어주심 머리 수술후 밥을 먹을때 물을 마시면 배가 많이 아팠는데 안수를 받은후 치유됨.불면증으로 너무 힘드는데 2달 동안 목주기도를 드렸는데 미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짐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것만큼만 고통을 주심, 지나온 세월을 돌아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도우미를 내옆에 보내주심에 감사...
- * 애 일로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에 잘 적응해서 정말 다행.멀리있는 학교를 오며 가며 목주기도도 하면서 ...또한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운동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모두가 감사
- * 구역장을 맡았는데 거의 안되든 구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분주함 “와라 , 머물러라, 가서 나발을 불어라, 두려워 하지 마라” 차동엽 신부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음.기도회원들이 반장을 맡으면 좋을듯...

예언 말씀

- +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겸손히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남의 말을 들어라.
- + 무엇을 그렇게 고집 하느냐? 내 말을 전하라 하지 않았느냐! 겸손히 내말을 전하라
- + 사랑, 사랑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생각하며 이를 행하여라
- +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다
- +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 +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평화가 올것이다
- +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참석 : 박 어거스틴, 이 필로메나, 권 요한, 전 막달레나, 김 맥시밀리언, 임 요셉, 임 요안나, 임 다윗, 김 빅토리아, 이 아네스, 석 레오, 박 세실리아, < 12명 >

+ 복음 [루가 24,13-35]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 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 보지 못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 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1분 명상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Emmaus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왠지
마음에 두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듯 만나도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 사람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만나면
서로가 멧쩍어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마주치기 싫어 고개를 푹 숙이고
모른 척 못 본 척 지나쳐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 좋은 인상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살아가야겠습니다.